

연습하지 않고 연주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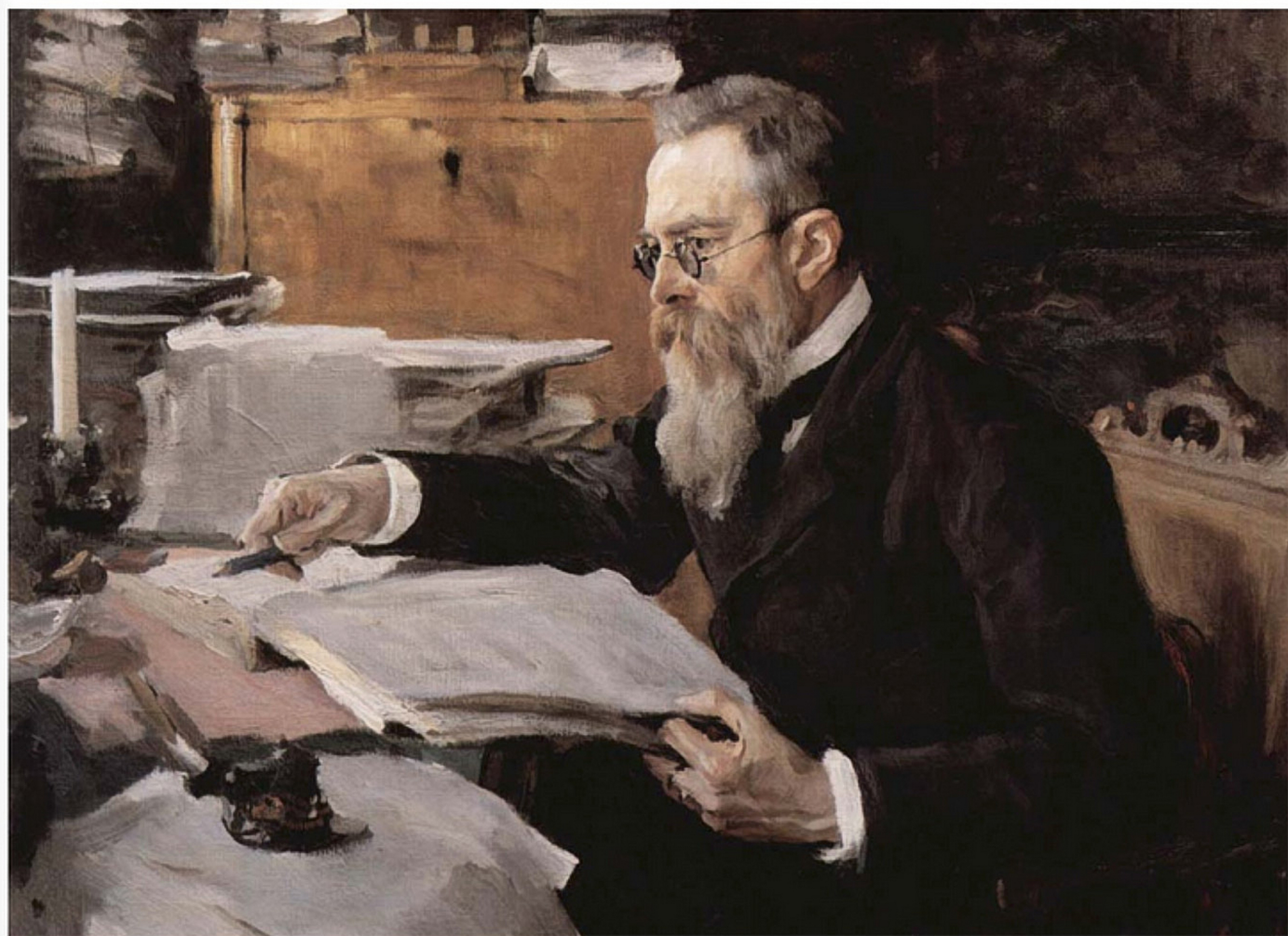
How Not to Practice

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연습은 당연히 필수적이고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술 감각과 감성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다른 활동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가끔은 바이올린을 그대로 두거나 피아노 뚜껑을 달아두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데, 오디션, 콩쿠르나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연주자의 경우 쉽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곡을 준비할 때 전반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악기 연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음악가 자신의 개발이다. 강한 예술적 성실함을 토대로,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음악적으로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음악 연주자로서 우리는 시간, 장소, 그리고 문화도 지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작곡가들이 쓴 작품들을 연주해야 한다. 과거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어떠한 예술적 혹은 역사적 관점과 관계없이, 추상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작곡가들의 생각에 더 가까워지고 싶거나, 그들의 작품을 왜곡하지 않고 표현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과 이 작품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작곡가의 생각에 접근해 그가 살았던 세상을 느끼려 시도하는 것은, 특히나 유럽과 멀리 떨어져



Nikolai Rimsky-Korsakov

연결된 것(건축과 같은)이 없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작곡가는 연주자가 처음부터 고려해야 하는 각자의 개성이 있다. 색다른 테크닉(피아니스트의 페달을 많거나 적게 조절하고, 비브라토에 변화를 주며, 활의 압력을 바꾸거나, 굴리산도를 시도하고, 루바토와 같은)을 시도하거나, 모든 양식을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점은 연주자가 자신이 연주하는 곡의 스타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같은 방식으로 연주하는 것은 스타일을 구별할 수 없게 하고, 각 작곡가의 특성을 내용 없이 얇은 해석으로 표현하게 한다. 실제로, 같은 방법을 시각예술에 적용해 감상한다고 상상해보자. 마치 다빈치, 모네 혹은 로스코와 같은 작품에 똑같은 인스타그램 사진 필터를 입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작품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전부 비슷해 변형된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슬프게도, 모든 작품을 같은 방식으로 연주하는 것 또한 음악적 풍부함을 감소시키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음악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학생들은 음악사를 접할 때 새로움과 호기심을 가지지 않는 한 쉽게 열정을 잃을 수 있다. 필자는 현재 음악사의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천천히 범위를 넓히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연습하고 있는 브람스 소나타에 대해 읽고 나서 브람스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연관이 있는 다른 작곡가들과 당신이 다루는 악기의 중요작품을 살펴보는 것이다. 가능한 모든 조사방향과 범위는 끝이 없다.

작곡가의 정신 상태나 환경을 상상해보려고 시도해보라. 만약 당신이 베토벤의 곡을 준비한다면 전기의 발명, 유럽 정치 변화의 영향, 그의 복잡한 감정적인 삶, 그의 건강문제와 같은 모든 요소들은 그의 음악과 형식 발전을 이해시키고 그가 무엇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와 좀 더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의 음악은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편하게 느끼기 위해서 그의 성격이나 유머, 사람에 대한 대담하고 무한한

호기심과 기술적 발견을 배움으로써 그의 작품에 더 가까이 다다를 수 있다.

음악 형식과 시각예술을 연결지어보는 것 또한 상상력을 발전시키며 보다 정확히, 특정 음악 형식에 대해 뚜렷한 이해를 돕는다. 인상주의 화가와 라벨(Ravel)이나 드뷔시(Debussy)와 같은 프랑스 작곡가들을 연결 짓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공통된 예이다. J. S. Bach가 오랫동안 재직했던 바로크 교회의 건축양식을 공부하거나 프로코피에프(Prokofiev)와 쇼스타코비치(Shostakovich)에 영향을 받은 러시아 영화감독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공급처는 꽤 다양하다. 한국에서 이용가능한 음악과 예술에 대한 책의 양은 어마하기 때문이다.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Gregor Piatigorsky)나 글렌 굴드(Glenn Gould) 혹은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Sviatoslav Richter)와 같이 과거의 위대한 해석가들에 의해 쓰인 책은 음악가들이 음악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며 매혹적인 독서를 제공한다. 당연히 인터넷은 방대한 도서관이자 동시에 열정적인 시각 박물관이다. 가장 좋은 것은 박물관에 직접 방문해보는 것인데, 한국은 미술전시의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방학기간동안 시간을 내어 방문해보자.

모든 음악가는 특별하다. 또한, 삶과 음악을 전반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호기심을 키워 예술적 개념, 본능, 그리고 개인 취향의 발전을 돕는다. 학생은 어떤 특정한 것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그의 음악적 선택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 결국 그는 연주하는 동안 더욱 설득력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대단한 호기심과 관대함을 가진 예술가 예후디 메뉴인(Yehudi Menuhin)의 명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멀리 있는 별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음악에는 우리의 신체적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닿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음악에 접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⑤